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Yahoo Finance: 미 생산성 1분기에 크게 하락
- Bloomberg: 파월 의장, “금리 인하 여전히 테이블에... 시기는 불확실”

#### [미국 금융]

- WSJ: 국채 시장, 사방에서 압력 받는다

#### [뉴욕]

- Bloomberg: 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 인플레이로 임대 상승

#### [미국 생활]

- CNBC: 유나이티드 헬스, “고객 3분의 1이 의료 사이버 피해 가능성”

#### [물류]

- WSJ: 해운사 머스크, 홍해 사태로 가이드선스 상향 조정

#### [미중 경제]

- WSJ: 중국, 트럼프 복귀에 대비한다

#### [글로벌 경제]

- WSJ: 아시아의 제조업 회복, 여전히 고르지 못하다
- WSJ: OECD, ‘금리 인하 가능성’ 예측과 동시에 ‘유가 위협’ 경고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예측된 ‘소비 감소’, 결국 스타벅스, KFC, 맥도날드에 타격 줬다
- WSJ: 머스크만 ‘로보택시’ 전망에 낙관적 태도 보인다
- Bloomberg: 펠로톤, 15% 감원에 이어 CEO도 사직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Yahoo Finance: US productivity slows sharply in first quarter

##### 미 생산성 1분기에 크게 하락

- 미 근로자 생산성이 1분기에 하락해 노동 비용이 급등했다. 그러나 크게 보았을 때 생산성은 여전히 견조한 상황이다.
- 시간당 생산을 측정하는 비농업부문 생산성은 지난 1분기에 연율로 0.3% 상승했다. 작년 4분기의 3.5% 상승과 크게 비교되는 수치다. 목요일 연방 노동부의 통계 발표다.
- 작년 1분기와 비교해서 생산성은 2.9% 상승했다. 노동 비용과 인플레이는 올해 1분기에 빠르게 상승했다.

## Yahoo Finance 기사

**Bloomberg: Powell Keeps Rate Cuts on Table But Leaves Timing Less Certain****파월 의장, “금리 인하 여전히 테이블에... 시기는 불확실”**

- 연준의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계속된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정책 결정자들의 확신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 파월 의장은 어제 화요일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올해 물가 상승 둔화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일정 발표는 피했다.
- 투자자들도 이러한 연준의 입장 변화를 파악, 당초 올해 6번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현재 단지 한차례로 베팅하고 있다.
- 어제 회의에서 금리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차대조표의 만기 자산 매각을 6월부터 늦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채 발행 한도를 월 6백억불에서 2백50억불로, 줄이고 모기지담보부증권 한도는 3백30억 규모로 유지된다.

##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The Treasurys Market Is Getting Squeezed From All Sides****국채 시장, 사방에서 압력받는다**

- 채권 시장에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상승했다. 주식 시장에도 여파를 주었다.
- 크게 늘고 있는 연방 정부의 지출도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이런 상황에서 국채 매도가 이어지면서 올해 4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22년 9월 이후 가장 크게 상승했다. 수익률은 작년 최고치인 5% 아래지만 여전히 20년간 최고치에 근접한 상태다.

## WSJ 기사

**[뉴욕]****Bloomberg: Stabilized NYC Rents Are Rising With Inflation. That's Good.****렌트 안정법 적용 아파트, 인플레이션으로 임대 상승**

- 뉴욕시 임대 가이드 위원회는 이번 주에 렌트 안정법이 적용되는 아파트를 상대로 임대료 인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

- 1년 임대되는 경우 2%에서 4.5% 사이로 가이드를 제공했다. 그 중간치는 정확하게 3.25%다. 3월까지 끝난 뉴욕-뉴어크-저지 시티 대도시 지역의 1년간 물가는 3.4%였다. 따라서 임대 인상률 중간치 3.25%는 물가 상승률에 조금 못 미친다.
- 렌트 안정법이 적용되는 아파트는 뉴욕시에서 1974년 전에 착공된 6가구 이상 아파트인데 뉴욕시 전체 아파트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

Bloomberg 기사

### [미국 생활]

#### **CNBC: UnitedHealth CEO estimates one-third of Americans could be impacted by Change Healthcare cyberattack**

#### **유나이티드 헬스, “고객 3분의 1이 의료 사이버 피해 가능성”**

- 대형 의료 보험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CEO인 Andrew Witty는 고객 3분의 1 데이터가 의료 관련 사이버 공격으로 유출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 에너지 및 상거래 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이 회사는 해커에게 2천2백만불을 지불 했다고 밝혔다.
- 그는 이러한 소행에 대해 조사 중인데 정확한 피해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고객의 3분의 1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CNBC 기사

### [물류]

#### **WSJ: Maersk Raises Guidance as Red Sea Disruption Set to Persist**

#### **해운사 머스크, 홍해 사태로 가이드런스 상향 조정**

-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Maersk)는 올해 하반기에도 홍해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적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이 덴마크 회사는 활발한 컨테이너 시장과 1분기 혼란 가운데 물동량 증가와 운임 인상으로 연간 가이드런스의 하단을 상향 조정했다. 이자 및 세금 차감 전 기본 손실에 대한 연간 가이드런스 범위의 하단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 홍해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업계의 과잉 능력 상황 속에서 이 회사는 비용을 줄이고 현금을 갖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올해 초에 중단했다.

WSJ 기사

### [미중 경제]

## WSJ: Beijing Braces for a Rematch of Trump vs. China 중국, 트럼프 복귀에 대비한다

- 중국 관료들이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에 대해 조용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격화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응하는 것.
- 일부 관리들은 11월에 트럼프가 승리하는 것이 중국에 더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미국 내 부적으로 더 많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바이든 때와는 달리 중국이 유럽과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그러나 정통한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가져올 피해가 잠재적 이익보다 더 클 것이라고 평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트럼프의 측근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앞으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 워싱턴 싱크탱크 스티븐 센터의 Yun Sun은 “중국인들은 트럼프의 복귀 시, 미·중 관계의 상승 요인은 제한적이지만 하락 요인에는 바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WSJ 기사

### [글로벌 경제]

## WSJ: Asia's Manufacturing Recovery Remains Patchy 아시아의 제조업 회복, 여전히 고르지 못하다

- 4월 아시아의 공장 활동이 소폭 약화했다. 이에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등 제조업체들의 신뢰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
- S&P Global의 데이터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의 제조업 경제는 2분기 초에도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해당 부문의 건전성에 대한 신호는 엇갈렸다.
- 4월 구매자관리지수는 51.0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경기 확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중립선인 50.0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3월의 51.5에 비하면 하락한 수치이다.
- Maybank의 Chua Hak Bin은 “전반적인 제조업 회복세가 식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평탄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WSJ 기사

## WSJ: OECD Sees Room for Rate Cuts as Inflation Cools, But Warns of Oil-Price Threat OECD, '금리 인하 가능성' 예측과 동시에 '유가 위협' 경고

- 목요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는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분쟁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긍정적 전망에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 OECD는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2024년에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총생산량이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이전 예측치인 2.9%보다 높아진 수치이다. 2025년에는 3.2%의 성장률 회복을 예상했다.
- 하지만 OECD는 중동 분쟁이 확대되면,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경제학자들은 물류 운송 경로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해, 유가가 배럴당 85달러보다 25% 상승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0.4 %P 낮아지고, 물가 상승률은 1%P,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5 %P 인상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Long-predicted consumer pullback finally hits restaurants like Starbucks, KFC and McDonald's**

#### **예측된 '소비 감소', 결국 스타벅스, KFC, 맥도날드에 타격 줬다**

- 1분기 동일점포 매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수요일 스타벅스 주가가 17% 하락했다. 피자헛과 KFC도 동일점포 매출 감소를 발표했다. 또한, 맥도날드도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수개월 동안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이 물가 및 이자율 상승에 대응하여 지출을 줄일 것이라 예상해왔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비가 줄어들고 일부 식당들이 값비싼 메뉴를 포기하고 있다는 지난 몇 분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패스트푸드 체인의 매출이 줄어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경영진들이 매출 회복을 위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출이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불명확하다.

CNBC 기사

#### **WSJ: Musk Has a Vision for Tesla's Robotaxi. Others Can't See It.**

#### **머스크만 '로보택시' 전망에 낙관적 태도 보인다**

-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기업의 장기적인 핵심 전략으로 '로보택시'를 추진한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 테슬라는 울여름에 핸들과 페달이 없는 미래형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며, 해당 모델은 우버 등의 자체 차량 호출 서비스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머스크는 로봇 테슬라를 에어비앤비와 비교하며, 소유주가 로봇 테슬라를 대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 해당 전략은 아직 개발 중인 기술 및 완성되지 않은 자동차에 큰 베팅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분석가들은 규제 모호성과 기술 장애물 등의 요인으

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무인 택시가 보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한다.

WSJ 기사

## Bloomberg: Peloton CEO McCarthy Stepping Down; Firm Cutting 15% of Jobs

### 펠로톤, 15% 감원에 이어 CEO도 사직

- 실내 운동기구를 생산하는 펠로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글로벌 인력을 줄이는 등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CEO인 Barry McCarthy도 물러난다.
- 그는 회사를 그동안 재정비했으며 회사를 단순히 자전거와 러닝 머신 판매 업체가 아닌,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회사로 변모시키려 노력했다.
- 또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매출 증대 차원에서 하얏트 호텔 등에 자전거를 공급해 왔다.

Bloomberg 기사

## 연준 '금리 관망' 길어질 듯... '인상설'은 수그러들 전망

### 파월 "금리인상 논의하려면 설득력 있는 증거 필요" 발언 주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 (이하 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당초 예상보다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연준의 금리 관망세는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 일각에서 슬금슬금 나오던 '금리 인상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연준은 이날 연방기금 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